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19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조계종 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성파 대종사가 추대 직후 진행된 고불식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에게 삼배받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고불식서 동체대비와 호국불교를 강조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12월 13일 종정추대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추대 후 조계사 고불식 봉행…"동체대비" 강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조계종 종정추대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종정추대의 건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를 추대했다.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의원 20명 중 현호 스님을 제외한 19명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등 22명이 참석했다. 종정추대회의에서는 정련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만장일치로 성파 대종사를 종정으로 추대했으며, 성파 대종사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26일부터 5년이다.

이날 종정추대회의가 끝난 직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은 신임 종정으로 추대된 성파 대종사를 모시고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총림 스님들이 성파 대종사에게 꽃다발을 전했으며, 경내에 있던 사부대중은 박수로서 새로운 종정 추대를 축하했다.

고불식에서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불기 2565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종정추대회의는 생명 위기, 평화 위기, 건강 위기의 사바세계에 불조의 혜명을 드리우사 청량한 감로의 법우를 내리어 삼계화택의 불길을 꺼주시기를 바라며, 참석대중이 만장일치로 중봉당 성파 대종사를 제15대 종정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성파 대종사는 헌화와 헌다, 삼배를 통해 부처님전에 새 종정으로 추대됐음을 고한데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대종사에게 삼배로서 존경의 예를 표했다.

성파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족한 소승을 원로 스님들께서 종정으로 추대해 주셨다"고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직 현 종정스님께서 임기가 남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간략한 소감만을 밝혔다.

대종사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말로 하기보다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정신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항상 동체대비 사상을 잊지 않고 호국불교의 기치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종단 최고 어른으로서 상징성과 권한을 가진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현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연임해 2022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 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 혹은 유고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원로회의 인원은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를 포함해 21명이다.

한편,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36대 집행부 핵심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원행 스님에게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禪藝一致' 보인 선지식
"수행, 예술도 일상일뿐"

종정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는 선방에 앉아 참선만 하는 수행자가 아니다.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이 곧 선수행' 임을 보여준 선지식이다.

성파 대종사는 1960년 10월 15일 통도사 노천 월하 대종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0년 4월 7일 월하 대종사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1월 15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강주인 홍법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아 강주가 됐다.

또한 1998년 봉암사 태고선원 수선안거 이래 총 26안거를 성만했다.

2002년 2월에는 당시 영축총림 방장이었던 월하 대종사로부터 "환성문하 13세손으로서 크게 법을 펴라"는 격려와 더불어 '사람들 각기 자신의 등불을 가졌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길을 찾으랴(人人各持自燈火 豈待日月尋前路)' 의 전법게 및 '중봉(中峰)' 이라는 법호를 함께 받았다.

대종사의 진면목은 예술활동에 있다. 실제 대종사는 사찰에 내재된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이를 선과 접목한 '선예일치(禪藝一致)' 의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199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1년에 걸쳐 도자기를 구워 제작한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장경각을 건립해 봉안했다. 천연염색 및 새로운 옻칠기법을 개발해 사찰단청과 건축, 도자기 및 그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도 사찰로부터 유래한 한국 전통회화인 민화에 옻칠기법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예술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불화, 경전 등 사찰불사의 바탕이 되는 우리 한지(韓紙)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대종사는 이런 공로로 지난 2017년 국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성파 대종사는 자신의 작품을 예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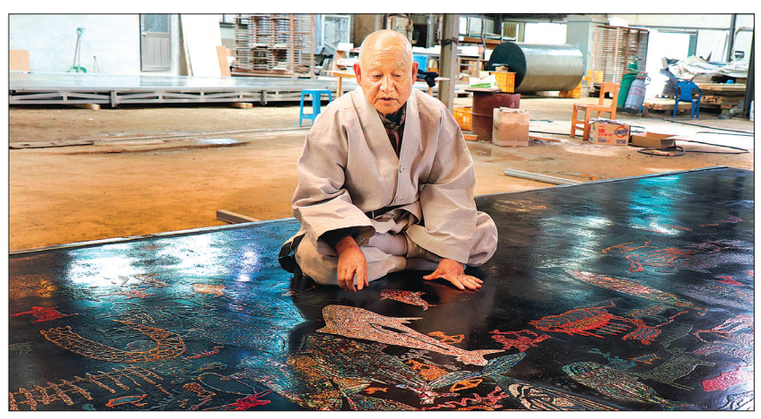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수행자에게 일상은 수행이죠. 수행을 따로 하고 예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의 소산을 '예술' 이라고 하는 것도 세인들이 붙인 것이지, 난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수행도 예술이라고 이름붙인 것도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본지 2016년 6월 10일자 인터뷰서

대종사는 교육 및 문화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기울였다. 1980년 2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학교법인 원효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 5월 원효학원이 범어사와 분립되자 학교법인 영축학원을 설립하고 38년간 종립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성파 시조문학상 및 전국 시조백일장을 제정해 한국 시조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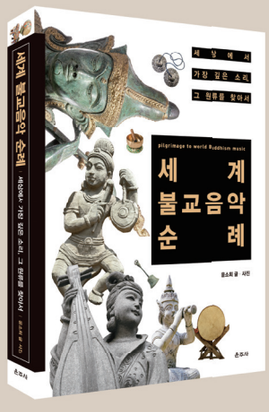
16만 도자대장경 조성해
옻칠 등 전통 보존 '앞장'

또한 대종사는 1980년 조계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규정부장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탰고, 1981년 3월에는 통도사 제20대 주지로 취임하며 교구본사 및 지역불교 발전에도 매진했다.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난 후에는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통도사 서운암 감원으로 주석하며 선수행에 온전히 매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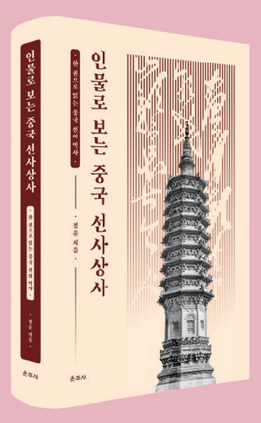
2013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4년 1월 조계종 최고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18년 3월 산중총회를 통해 영축총림 제4대 방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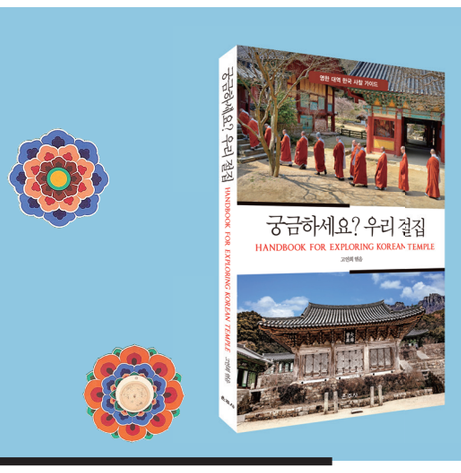


옻칠로 재현한 울산 반구대암각화 위에서 성파 대종사가 도판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인물로 보는 중국 선사상사

한 권으로 읽는 중국 선의 역사!
중국 선종사의 주요 선사들의 삶과 사상 등을 살펴보면서 중국 선의 방대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역작! 풍부한 사진과 꼼꼼한 법계도가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양장/616쪽/값 30,000원


고연희 엮음/신국판 변형
244쪽/값 14,800원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HANDBOOK FOR EXPLORING KOREAN TEMPLE
때론 영어로 보면 더 쉬운 불교공부
익숙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절집! 외국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절집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영한 대역 불교입문서!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